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August 18, 2016 Vol. 542

‘교회 종(鐘)’ 누구 위해 울리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제31회 하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오는 21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나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경기장 내 선수들의 승자와 패자의 희비는 해당 선수들만의 뜻이 아니다. 그들을 파견한 각 나라와 국민들의 희비로 이어진다. 승자의 환호는 국가의 자랑이 되는 반면, 패자의 낙담은 국민의 가슴아픈 눈물이 된다. 그것이 조국애(愛)다. 그것이 민족애(愛)다. 세상은 원래 그런거다.

그 와중에 서로 함께 하는 연합과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리우 올림픽 경기장을 넘어 전 세계를 잔잔히 감동시키고 있다. 여자 육상 5천미터 예선에 출전한 니키 햄블린(뉴질랜드)과 애비 다고스티노(미국)의 이야기다.

이들은 승패(勝敗)보다 더 중요하고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 두

선수는 결승점까지 약 2천미터 정도를 남겨놓고 각축을 벌이며 달리던 선수들 틈에서 같이 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햄블린이 넘어지고 말았다. 바로 뒤에서 뛰던 애비 다고스티노(미국)가 넘어진 것이다.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트랙에 앉아 망연자실해 하던 그녀에게 다고스티노가 다가와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일어나. 결승점까지 뛰어야지”

물론 그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런 관계인데도 다고스티노의 말에 햄블린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곧바로 일어섰다. 그러나 정작 다고스티노는 계속 달릴 수 없었다. 넘어질 때 무릎을 심하게 다친 탓이다. 이번에는 햄블린이 다고스티노에게 위로자가 됐다.

햄블린은 다고스티노가 일어나는 것을 도운 뒤 스스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결승점을 먼저 통과한 햄블린은 약 1분 뒤 피니시 라인을 통과

한 다고스티노를 맞이하며 뜨겁게 포옹했다. 그리고 관중들은 모두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둘은 당연히 예선 탈락이다. 그런데도 경기감독관인 패널들은 두 선수에게 결승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에스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다고스티노는 무릎 부상이 심해 결승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세상도 이러할진대, 교회가, 교계가 연합과 화합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존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 중 하나가 연합과 화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남가주교협이, 이민교회가 연일 불미스러운 일로 흔들리고 있다.

먼저 나성영락교회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 편 네 편이 되어 여전히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 선 교회 지

도자들은 이제 연합과 화합을 위한 영적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내 갈등이 어디나 성령교교회에만의 문제일까. 어쩌면 모든 교회의 문제일 것이다.

남가주교협 또한 임원의 막말 파문으로 교계가 편치않다.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 소지의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연약한 한 영혼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막9:42)

교회의 종(鐘), 누구를 위해 울려야 할까? 그 속에 해답이 있다.

이영인 기자

만세삼창

강부웅 목사(교역자문)



남가주교협(화장 강신권 목사) 주최 광복 71주년 기념예배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대한독립만세…남가주교계 광복71주년 기념예배”

남가주교계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기념 연합예배를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14일 드렸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화장 강신권 목사)가 주최한 이 행사

에서는 온 회중이 미국 국가와 애국기를 부르고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해방의 감격”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행사 중 목사장로부부합창단, LA색소폰오케스트라, 한아름합

창단 등이 찬양했으며 참석자들은 조국 통일, 미국, 한인이민사회, 교계와 한인교회, 차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교계 지도자들의 선창으로 만세를 불렀다.

김준형 기자

“인간–동물 합성 연구?”

하나님의 창조질서 위배…연구 지원 저지돼야

미 연방정부의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스템 셀) 연구에서 제시했던 “인간–동물 합성proposal”을 올해 다시 제안됐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큰 반대가 없을 경우 연구를 위한 예산지원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연구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으니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사실 지난 2015년 9월에도 이 연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미 의회는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간–동물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8월 4일, 국립 보건원(NIH)은 그 금지 입장을 취소 준비 중이며 9월 중순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 한다.

새롭게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의 특성을 결합하여 인간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배아인 치메라스(chimeras)를 만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성소수자 관련법 SB1146 [9면 참조]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HAS SCIENCE
BURIED GOD?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했는가?

FRI, SEP 09
7:00 PM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487-5437 | E-mail: events@nca.org

Guest Speaker: Dr. Hugh Ross Organization: Reasons to Believe (reasons.org) Sponsored by NEW COVENANT ACADEMY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가 참석했다.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가 강의하고 있다.

“목회는 힘들수록 행복하다”

행복목회 컨퍼런스 강사 백동조 목사…목회, 힘든만큼 ‘천국의 상’ 크다



행복목회 컨퍼런스에서 강의한 한기홍 목사(왼쪽)와 백동조 목사.

“지금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천국의 상이 더욱 클 겁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은혜한인교회가 미주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 개최한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16일까지 양일간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와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강의했다.

한국에서 행복목회 아카데미로 동료 목회자들을 섭끼고 있는 백목사는 자신의 행복목회 철학을

13번의 강의를 통해 나눴다.

한기홍 목사도 ‘청중들이 이민 목회자’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2번의 특강을 전했다.

백 목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복목회주의자로, 30년 전 그가 개척한 목포사랑의교회는 현재 4천 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는 처음 이 프로그램을 성도들을 위해 개발했지만, 목회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2011년 3월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7회를 거치는 동안 1,500여 명이 이 과정을 거쳐 행복한 목회자로 거듭났다고 한다.

또 이들은 ‘행복목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목회 자료를 공유하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북핵 폐기 천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목회자들이 세계아기폐선교교회에서 성도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용 목사, 정종윤 목사, 심진구 목사, 김영구 목사, 백종윤 목사.

“북핵폐기 천만명 서명운동”

남가주 교계도 동참

2016년 2월 한국에서 출범한 이 운동은 최근 미주 각 지역에서도 시작됐다.

지난 7월 중순경에는 박희민, 송정명, 강신권, 엄규서 목사 등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모임을 열고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한 게이트웨이신학교 전경 ©게이트웨이 신학교 홈페이지



한인가정상담소가 올해도 백팩 드라이브 행사를 통해 마련한 선물을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아태프로그램에 전달했다.

“위탁가정 어린이 위한 새 책가방 준비했어요”

한인가정상담소 백팩 드라이브…위탁가정 어린이 위한 327개 책가방 마련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한인들의 사랑을 모아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새학기 선물로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10일 학용품이 가득 든 책가방 327개가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아태프로그램에 전달됐다.

이 선물은 10명의 한인을 포함

한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청각장애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3년째 ‘백팩 드라이브’ 행사를 통해 모금 활동을 벌여 위탁가정 어린이들의 새 학기를 선물로 채워주고 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올해도 한인

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한미은행을 비롯해 아웃도어 백팩, 카리스처치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골든게이트신학교, 남가주로 이전 학교명 ‘게이트웨이신학교’로 변경

남침례회 산하 6대 신학교 중 하나인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가 2016년 가을학기에 맞춰 본교를 남가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이름도 게이트웨이신학교(Gateway Seminary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로 변경했다. 1944년 북가주 베이 지역 즉, 골든게이트 지역에 설립, 운영되어 온 이 학교는 1959년부터 사용하던 밀밸리 캠퍼스를 매각하고 2014년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본교 이전을 기념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는 디어공개강좌(Deere Lecture)가 열린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크레이그 에반스 박사가 “고대 전기와 복음서의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강의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게이트웨이 갈라(Gateway Gala)를 저명한 교회 음악 연주자 키아스 게티를 초청해서 온타리오 컨

벤션센터에서 연다. 게티는 찬송가 등 전통적인 교회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대중에게 교회 음악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10월 8일에는 새 캠퍼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해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즐기는 행사도 연다.

한편 본교가 이전하면서 북가주에는 프리몬트에 북가주 캠퍼스가 신설됐다. 프리몬트는 과거 본교가 있던 밀밸리로부터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워싱턴 주 밴쿠버 캠퍼스, 아리조나 주 피닉스 캠퍼스, 콜로라도 주 덴버 캠퍼스는 그대로 있다. 또 한영이 중언어 과정이 있는 남가주 브레이 캠퍼스도 그대로 있게 될 예정이다.

*주소: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웹사이트: www.ggbts.edu

www.gs.edu

미성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마감: 8월 24일 / 개강: 8월 29일)



모집과정

본교는 CA 주정부교육국과 연방정부교육부인준 ABHE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함

신학부: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박사(D.Min.)
경영학부: 경영학과(B.A.), 경영학석사(MBA)
상담학부: 상담학석사(M.A.C.), 상담학박사(D.C.)

입학지원

- 1. 입학서류: 본교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aeu.edu)
- 2.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장학생선발)
- 3. 신청마감: 2016년 8월 24일(수)

입학관련문의

Tel : (323)643-0301 / E-Mail: admission@aeu.edu(담당: Jin Lee)

미성대학교의특징

- ABHE 정회원/서울신학대학교 MOU 체결(교수, 학생, 학점 등 전과정 협약)
- 전 과목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강의
- 한국과 미국 또는 전 세계에서 수강가능(온라인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전

- 모든 과정 I-20 발급, 졸업후 전과정 OPT 가능
- 저렴한 학비, 월 Payment로 낮은 부담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 가능(영주권 또는 시민권학생)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성대학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Email : info@aeu.edu



참가자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8.15 광복절을 기념해요"

OC평연 주관 광복 71주년 기념 감사예배…OC 교계 및 OC-SD평통 공동 개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이하 평연)에서는 14일 저녁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광복절 71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통일기념, 통일기원음악제를 주관, 개최했다.

이 행사는 OC교협, OC목사회, OC장로협, OC원로목사회 등 교계 단체와 OC-SD미주평통이 공동주최했으며 복음방송이 후원했다.

윤우경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통일선교강연회, 그리고 3부 통일기원음악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OC목사회 수석 부회장 김익현 목사 기도, "영광의 해방"(롬8:31~32) 주제의 OC

교협 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설교에 이어 OC-SD평통 회장, OC 한인회 회장 김종대 장로, 65지구 영감 주 허원의원 등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통일선교 강연은 1967년 미국으로 이민와 성장하면서 지난 30여 년 전부터 복음으로의 통일 한국을 위해 사역해온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석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마지막 3부 통일기원음악제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고유의 가락과 고향의 아름다운 가곡, 성가곡들로 꾸며졌다.

남가주장로성기단, 갓스이미지, OC남성 콰이어, 그랜드 페스티벌

여성 콰이어, 딜리버러스 유스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김희우, 테너 김성봉 등이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모두가 무대에 올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한 후 통일을 위한 통성기도를 드린 후 평연 초대 회장이었던 양문국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출연진과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학생들로부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며 남과 북의 온전한 통일이 참된 광복의 완성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우물 1개마다 1천 명씩 깨끗한 물 마셔"

소망소사이어티 우물사업…아프리카 차드에 279개의 우물, 4개의 유치원 설립



박근선 차드 지부장이 라팔마감리교회에서 소망 우물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아프리카 차드에 들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박근선 차드 지부장이 7일과 10일 양일간, 현지

의 사업을 라팔마감리교회와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각각 보고했다.

라팔마감리교회에서 열린 현장 간증 및 보고회에서 박 지부장은 차드에서 이뤄지는 우물사업과 유치원 사업은 물론, 여려 교육 사업, 리더십 훈련 과정을 소개하며 성도들의 후원을 요청했고 교회에서는 우물 2개를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후원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후원 감사의 시간에서는 박 지부장의 보고에 이어 우물 사업 후원자인 이은철 목사와 정수웅 목사가 각각 간증했다.

김준형 기자

"노방전도, 어떻게 생각하나?"

변화한 그곳의 낯선 풍경…예수천국 불신지옥

서울의 변화가인 명동.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에 매우 낯설고도 이질적인 풍경이 하나 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뜨거운 8월의 어느 날, 인파(人波) 사이를 가르는 한 중년 남성의 등에는 이렇게 쓰인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찬송이 흐르는 낡은 카세트플레이어를 목에 건채, 그는 지나는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외친다. "예수 믿으세요!" 그저 이 한 마디만.

왜 하느냐 했더니 "10여 년 전 지하철에서 본 한 전도자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이단으로 알던 곳의 소위 '교주'를 전하고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로 이단들이 한다며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구령'(救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구시대적'이라는 견해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교회사)는 "전도의 열기가 사라진 이 시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만큼은 높이 사고 싶다"며 "그러나 그것도 결국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이라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시대에 맞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

다고 했다. "이단도 저렇게 열심인데..." 그 때부터 '예수를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또 이곳에 자신들 말고도 전도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는데, 자신들이 떠나면 그들이 더 활개칠 것 같다고도 했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인들

이 많이 지나다닌다. 그 중에는 평생 예수라는 말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

이 와서 (예수에 대해) 물어본다"며 "또 가끔 올면서 찾아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느냐고 묻는 이도 있다. 당연히 '그렇다'고 답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덧붙인다"고 했다.

이미 많은 소통이 SNS와 같은 온라인으로 옮겨간 시대, 이런 전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흔히 '노방전도'(路傍傳道)나 '축호전도'(逐戶傳道)라 부르는 것들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전도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처럼 극히 단순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 메시지만을 전하지는

조언했다.

김재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도 "최근에는 관계전도가 더 각광받고 있다. 시대마다 그에 맞는 전도의 방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지만 최근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노방전도와 같은 것들보다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구시대적'이라 부르는 이런 전도의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실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고, 그나마 성장했다는 교회들도 알고 보면 '수평이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셨듯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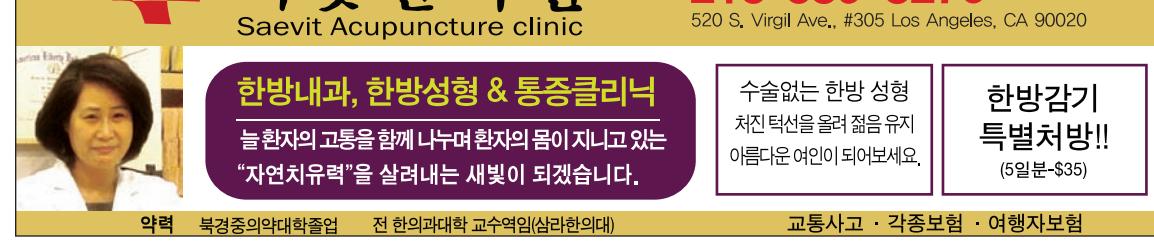
"그보다는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맞선다.

독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김진영 기자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갑과을 그리고 병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세상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만드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이사장 : Dr. Casey Kim, Ph.D.
- 총장 : Dr. William Stinde, Ph.D.
- Contact : Christine Ji, Director

(*카톡 또는 문자로 문의 가능합니다.)

(714)357-0242

lahope1004@gmail.com

Piedmont University

www.piedmontuniversity.ac

*개강일 : 2016년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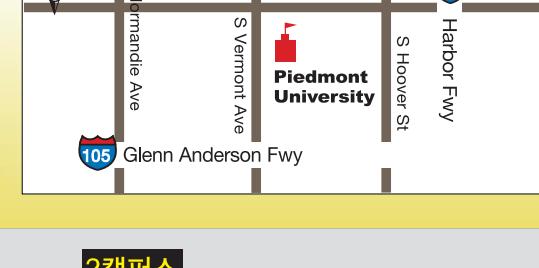
PU 학과별 학생모집(00명)

MA Church Music (교회음악석사)

MA Missiology (선교학석사)

MS Oriental Medicine (한의학석사)

Certificate Director Pre-school (유아교육 원장 자격증)



1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424)257-8166

2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Tel:(323)777-5269

구령(救靈)의 산고

마태복음 27:45~5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대속(代贖)의 십자가

예수님은 제 육시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의 시간은 해 또는 시간을 한시로 했기 때문에 아침 여섯시에 해가 됩니다. 여기서 육시라는 것은 해 또는 시간에 여섯 시간을 더하여 계산하면 정오, 낮12시가 됩니다.

아침 일찍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출발하신 예수님이 다�섹으로 통하는 성문을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시다 여러 차례 쓰러지셨기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절기를 지키려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기 위해 길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쏘운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주님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뜻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로 죽기 싫어서 불평하는 말로 호소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처참한 형벌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던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도록 베림을 받아 죽어갔는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정확한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속의 희생이요, 고난이며, 산고였습니다’하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성도의 자격이 서둘러 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얻으라고 기록하신 특별계시인 것입니다.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는 아무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확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해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이제껏 예수님이 구령의 산고,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치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의미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불행을 접하게되고 말 것입니다.

2. 구령(救靈)의 산고의 증거(證據)

51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두 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 만든 궤적이 범례입니다. 그 궤안은 세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만나를 넣은 순금을 입힌 돌항아리, 아론의 짹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신 법통(法統)의 하나님이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생명의 뼈으로 오시고 산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려온 그 짹난 지팡이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진 성소의 모형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 그 중간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어 이 휘장을 찢고자 하면 아래쪽을 조금 잘라 양쪽으로 사람들이 잡고 당겨야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이루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아 둘 필요가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부활(復活)의 증거

에스겔 37:1~37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대군을 이루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부활소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

시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하여 썩은 냄새까지 났지만 예수님의 “나사로야, 일어나라”하시자 시체가 별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

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된다는 계산으로 유대교의 종교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시 허락받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기대하는 궁극적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진수(眞髓)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리들에게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어서 나사로는 부활의 표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되살아났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곧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운명하시던 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먼저 부활한 듯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부활일뿐 영구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는 예수님의 첫 열매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리”(마27:54)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해산하시느라 치르신 예수님의 고통이 구령의 산고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9~21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예수님께 기대 걸고 따르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겠지만 마귀 앞잡이로 세상에 속한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치루는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느니라”(요16:21)

이렇듯 예수님의 갯세마네 동산에서 해산의 수고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 위하여 준비하신 기도는 육체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시달리며 죽기까지 혈기를 완전히 죽이고 영적인 사명에 일념해서 영적으로 사명 감당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 받고 구원 얻었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구령의 산고를 겪더라도 그 영혼을 꼭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예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T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론 기독학교 학생모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모집 대상

9-12학년이 되는 선교사/목회자 자녀 (신실한 크리스챤 자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여수론 기독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사람
-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
-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전형 방법

- 1차 서류 전형
 - 입학 지원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학부모 동의서, 기숙사 생활 동의서
 - Field Work 동의서 각 1부
 - 추천서
 -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사진 3매
 - 서류 전형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 전화 면접 가능, 날짜 및 시간은 개별 연락

문의처

315-474-8346
info@jeshurunchristianschool.org

교장 자유주 박사

현 시리큐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W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6:33 MORNINGS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3P PERSPECTIVES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SKILLS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 순전한 삶 (Sound Life)

-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기독학교의 교육의 근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unchristianschool.org

info@jeshurun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미국 PCA 교단에 소속한 본 갈보리 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중·고등부(Youth Group)
영어 목회부(English Ministry)

자격조건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체류에 이상 없으신 분.
영어에 능통하신 분(한국어 가능하신 분 우대)
사명과 열정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실 분.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자기소개서(신양간증 포함) 1부

연락처

교육위원장(정석표 장로): T(443)243~0061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조 병래)
www.calvaryus.org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 3년 이상 목회 경험 소유
- 미국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최근 가족 사진 첨부)
- 신양 간증
- 목회 비전 (8.5" x 11" 3장 이내)
- 최근 일년 이내 설교 2편 (MP3, MP4, CD, 또는 DVD)

보내실 곳

Email: seanshim@yahoo.com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of Portland
Attn: 청빙 위원회
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 97004

포틀랜드 영락교회**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필/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 교육칼럼(8)**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3)**

지난 칼럼에서는 청소년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 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 및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모가 청소년인 자녀에게 적용해야 할 적절한 신체적 접촉(physical touch)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터치가 십대에게 적절하다: 어깨에 손을 얹는다; 등을 살짝, 톡 친다; 운동 선수들이 하듯이, 특히 아빠가 아들에게 엉덩이를 툭 치기, 하이 파이브, fist bump 등이 십대에게 “통하는” 신체접촉이다.

물론 십대자녀가 “그런 표현이 싫다”라고 말하든지,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히 표현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십대 청소년이 “웰컴” 할 것이다.

특히 아빠들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기 바란다. 예를들어, 딸아이가 십대가 되면 아빠의 터치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많은 아빠들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딸아이가 더 이상 아빠의 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아빠는 이로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아빠가 딸에게 적절한 ‘터치’로, 나이에 맞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딸들은 이성친구로부터 잘못된 ‘터치’로 대리만족을 찾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아빠와 딸 사이에 언급한 “터치”的 이치가 엄마와 아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터치”를 다룰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부적절한 터치”이다. 특히 부모는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아이들을 잘못 터치한다. 예를들어, 매를들어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어떤 엄마 아빠는 십대자녀를 밀치거나, 목을 조르기도 하고, 몸을 과격히 훔들거나, 발로 차거나, 원산폭격 같은 심한 벌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특히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부모는 체벌과 함께 심한 욕, 과격한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에, 부모는 화/분노를 잘 다스려야함을 잊지 말자. 이런 부적절한 터치는 학대라 간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후 아무리 사과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런 해프닝이 반복되는 가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노여움은 줄어들고 없어져야 한다.

끝으로, 가장 잘못된 터치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학대이다. 성적학대는 100% 잘못된 것이고, 절대 눈감아 주어선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문제로 확산되거나, 쉬쉬하다간 자녀에게 깊은 상처로 평생 남고, 더 나아가 대물림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만약 성적학대의 이슈가 가정에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특히 유교적 배경을 갖고있는 동양인들은, 배우자가 자녀를 성적학대 하는 것을 집안의 문제나 가문의 창피로 여기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결정은 자녀로 하여금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하며, 평생 피해의식에 놀려 살게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의 개입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

성적학대에 대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부모는 자녀와 친척과의 관계도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 해야한다. 통계에 따르면 사촌이나, 삼촌, 이모, 고모를 통해 이성/동성애적 학대를 받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모든 친척이 다 아이들에게 좋다고 간주해선 안되겠다.

자, 그럼 적절한 ‘터치’의 예를 좀 더 살펴보자. 가족이 기도할 때 손을 잡기, 아이와 부모만의 특별한 핸드셰이크 사용하기, 자녀가 마사지를 원한다면 해 주기(머리, 목, 어깨, 발, 손목 등), 훈계 후 꼭 따뜻히 감싸주기, 하이 파이브나 피스트 범프로 “쿨”하게 대해 주기, 따뜻한 터치/feeling을 주는 선물주기(베개, blanket, 스웨터 등), 터치가 필요한 운동이나 스포트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기(농구, 축구, 유도, 등), 아이가 원하면 힘겨워보기(팔씨름, 장난이 곁든 레슬링), 잠자리에 들 때 이불 잘 덮어주기 등은 다 적절하고 건전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십대 자녀에게 효과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자.

흙바닥에 임한 하나님 나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비법’에 전 세계가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살까?

병에 안 걸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편안함과 부모함에 목말라 있다. 어디 보이는 것 뿐이겠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 받으려면 좋은 학벌과 인맥, 회려한 경력과 실력을 두루 갖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한다.

첫 인상도 아주 중요한 나머지, 눈, 코, 입, 얼굴 형태, 가슴, 다리도 모자라 심지어 주름살 제거와 지방 흡입수술까지도 서슴치 않고 시행하면서 피부미인, 얼짱, 몸짱을 꿈꾼다.

여자만 성형수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남자도 필요하면 여러가지의 성형수술에 많은 비용을 아깝지 않게 쓴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외모와 근육질의 몸매를 갖췄다고 다 행복할지 모르겠다.

아이비리그의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면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목상, 사모함이 있다.

과연 예수믿는 우리들에게 매일 경험되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개인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높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누려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속엔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의 간증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욕심과 분노를 뜯어겨 세상 사람과 다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산다.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국 땅에도,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 현장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사실 천국 경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나 자신, 가정, 직장, 이웃, 교회, 사회, 나라까지도 확장되는 것이다.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무엇일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보여지는 것이다.

더 이상 손가락질 하며 잘못을 들춰내는 일을 멈추고, 변화될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 함께 손잡아 일으켜주는, 세상과 다른 하늘의 기준이 임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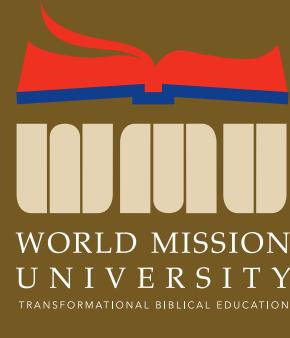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하늘의 은혜가 순식간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쏟게 하는 놀라운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천국은 피상적 이미지가 아니고, 예수믿는 우리들, 천국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언어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현장이라 믿는다.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으로 품어 주라! 그 순간, 나도 절제할 수 없었던 내 안의 분노와 절망, 파괴적 표정들까지도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처럼 무덥고, 무섭고, 인색한 시대에는 더욱 더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죽도록 사랑해야 살 수 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날 뿐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다면 왜 주저하겠는가?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구원의 기쁨이 천국의 현장을 경험하게 한다.

삶은 결단이다. 천국을 선택하자. 천국을 선물하자.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 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양성 월드미션대학교

대학/대학원 과정 신(편)입생모집

ATS, ABHE 정회원인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성서학, 다문화 기독교교육학, 신학, 기독교상담학, 음악학, 실용음악을 전공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캠퍼스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독교상담학은 LA캠퍼스와 OC상담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규 학위를 위해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제도



대학과정 재학생의
50%이상 학비지원
연간 평균 \$5,800의
정부 학자금 혜택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정규 학위를 받을수있는
학문탐구 기반의
온라인 수업



다분야의 성서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과 및
변화된 교육과정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대학원

- Asbury Theological Seminary
- Azusa Theological Seminary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 Talbot School of Theology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World Mission University

캠퍼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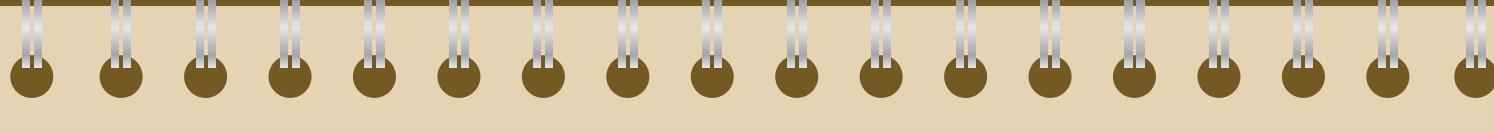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음악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음악학과
- 박사과정: 목회학과
- 수료증과정: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프로그램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수료증과정: 가정상담 사역자과정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과정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 미군목 장교지원 ·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온라인 수업, 강의 DVD, 모바일 사용



모집마감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지원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

선발방법

서류전형 후 심층면접

모집전공

성서학 / 상담학 / 실용음악

- 성서학: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사역자 훈련과정
- 상담학: 한국과 미국 상담협회 모두에게 인정받는 과정
- 실용음악: 교회음악과 예배사역자로 세워받는 과정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213) 388-1000

• 입학상담전화: **213.388.1000**

• 입학홈페이지: **www.wmu.edu**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기독교 사립대학인 바이올라대학교 전경. 바이올라대학교는 SB1146 반대에 있어서 아주사파시픽대학교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성소수자 관련법 SB1146 최종 수정”

CA 종교계 사립대학 겨냥…법적 제재 제3조 삭제돼

캘리포니아 주 내 종교계 사립대학의 성소수자 관련법안 SB1146이 대폭 수정됐다. 8월 15일 최종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교계 대학들이 성소수자들에게 학장실, 기숙사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성소수자들에게 그들의 성정체성과 맞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을 강요할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가 삭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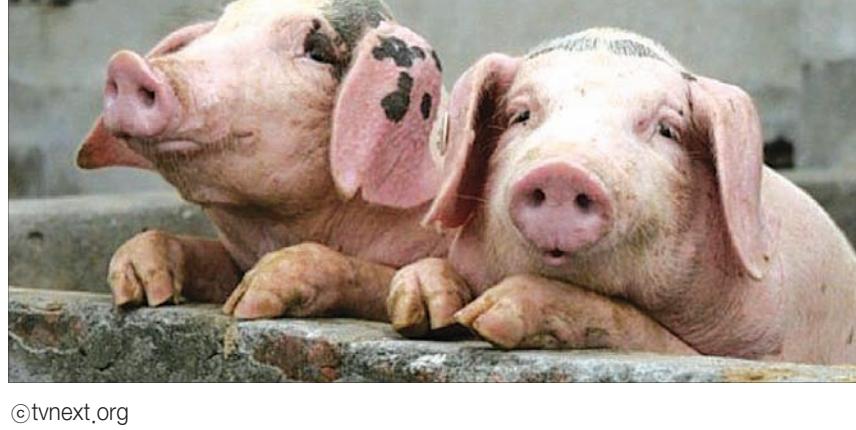
대신 종교계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학생재정보조위원회에 1년에 4번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 보고서에는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 학생이 정학 혹은 퇴학당한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생이 어떤 규정을 어겼으며 캘그랜트 수혜자인지를 밝히도록 했다. 또 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 개정교육법 제9조(Title IX)나 캘리포니아 고등교육평등법(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의 면제 조항에 의거한 것인지를 밝히게 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법안 중 제3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학생재정보조위원회에 접수된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종교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법안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종교계 대학들은 성소수자들의 소송 위협으로부터는 일단 해방됐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살아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교계 대학 중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받는 학교는 면제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재학생, 신입생, 교직원은 물론 입학 희망자에게도 알려야 하고 학교 곳곳에 공지를 붙어야 한다. 새 학기 오리엔테이션과 학교 교직 책자에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런 사실을 캘리포니아 주 학생재정보조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는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기독교 대학에 성차별 학교란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준형 기자



©tvnext.org

“인간–동물 합성 연구?”

하나님의 창조질서 위배…연구 지원 저지돼야

[1면으로부터 계속]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민주당)에서는 이미 연방 자금(시민들의 세금)으로 후원을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허용될 경우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까?

국립 보건원인 NIH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통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제안은 매우 높은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과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에 따르면 치메라는 인간의 두뇌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한다.

둘째, 인간의 난자나 정자가 있는 동물이 만들어져 동물이 사육될 때 “인간 태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과학자들은 인간 장기를 데지 몸 안에서 성장시켜 이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염두에 없는 듯하다. 그 부작용에 대한 “정학 한 조사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연구를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치메라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들도 영국의 과학자들처럼,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연구를 추구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이 연구를 위해 연방자금(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연구가 “우리들의 세금으로 후원”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을 만드는 유전자 수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기대보다 영화속에서나 보는 픽션이 현실화되는 악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

참고로, 이미 2011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3년 동안 150개의 “인간–동물 합성” 연구가 진행됐지만 온전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전혀 없었고, 결국은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연구가 진행되면서 예기치 못한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란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이러한 연구조사와 결과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부작용을 가져올 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일부 양심있는 과학자들과 의원들의 우려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오바마 정부가 올해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인 에이즈(AIDS)치료연구비로 총 34조(미국: 27.5조, 6.6조)를 후원하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결재했음을 지난 2월 카이저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에이즈에 대한 연구비도 이렇게 어마한데, 위험 천만한 “인간–동물 합성” 연구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연구비용이 들어갈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동물과 합성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죄악이다. 온라인으로 NIH에 항의하기(<http://grants.nih.gov/grants/rfi/rfi.cfm?ID=57>)가 필요하다.

*참조 웹사이트: www.tvnext.org

교회 및 선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모전 6:20(토)
주일 바일학교 교육 12:00-17:00 버몬트 코너
주중세미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자를 돕고자, 이민자를 치료하여 선교방법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LA 사랑의교회
장태원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churh.com

김기섭 담임목사

박영천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김기섭 담임목사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생하여 든든히 서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la.org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목요예배 저녁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목요예배 저녁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성공공부 주말오후 12:00
토오픈모임 모임 오전 11:00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종교동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일요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후 7:30
창립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전양예배(화-금)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나성장로교회 앤카리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김종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7:3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성공공부 주말오후 12:00
토오픈모임 모임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기쁨,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협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F.(818)549-9199/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주일부예(화~금)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월~금)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화~금)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전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밀辱에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div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오후 6: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 제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상전)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전) 새벽기도회 월-금 9:30
본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상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증보기도집 오전 10:30
주일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화-금)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예배(화-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이창민 담임목사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310) 645-3698 / F.(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6: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8: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평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8: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30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10:00
성기대연습 오후 10:20

권영국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7:20
EM예배 오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7:20
EM예배 오후 11:00

이종용 담임목사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이정현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집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0:30 화-금 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후 7:30
유난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를 교회 변화받는 교회 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 기도회 오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예배 오전 8:00 황금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유통 8:00(금)
유년부 예배 오후 1:3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방수민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818) 884-2391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배 기도회 오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7:45

김인식 담임목사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주일 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최혁 담임목사



신성모독법으로 박해받고 있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전 세계 인구 4분의 1, 종교제한 심각”

美 국무부, 최근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미국무부는 10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The 2015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 인구의 75%가 정부의 정책 또는 개인, 기관, 사회적 단체들의 적대 행위로 인해 종교 자유를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례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소수종교 집단이나 특정한 나라에서 비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종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특정한 규제들’이 증가한 국가의 수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 같은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자유의 악화는 강력한 연계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적 공간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많은 소수 종교단체들이 그 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종교들이 비정상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성모독법을 주목했다. 앞서 데이비드 사파스테인 국제종교자유 특임 대사는 “신성모독법은 오싹한,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미국무부는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특별히 신성모독과 개종의 고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폭력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이 다른 어젠다를 추구하기 위한 잘못된 고소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다”고 말했다.

미국무부는 “이슬람국가와 보코하람과 관련해 “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단체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중동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 여성. ©FIM국제선교회 제공

“유럽, 무슬림 전통복장 착용 금지 확산”

테러 위협때문에…현지 무슬림들은 종교 자유 근거로 반발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가 연이어 발생한 유럽에서 무슬림 전통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칸에서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카니’(부르카+비키니) 착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전했다.

칸은 지난달 14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주종자가 저지른 트럭 테러로 85명이 사망한 니스와 인접한 도시다.

가디언에 따르면, 다비드 니즈나르 칸 시장은 해변과 접근과 수영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프랑스 전통과 설립 이념인 세속주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규칙안에 서명했다.

니즈나르 시장은 “최근 프랑스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어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청 관계자인 티에리 미굴 역시 “해변에서 종교적인 의복 착용을 막는 게 아니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를 드러

내는 것을 막는 것이고,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프랑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며 종교 차별 우려에 대한 선을 그었다.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대상국인 독일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테러 강화책을 마련 중인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부르카,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전통복장 착용의 금지를 고려 중이다.

스위스 티치노주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부르카 착용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9월 주민투표 결과 참가자의 6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현지 무슬림들은 종교적 자유와 실효성 등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독일 내 터키인 단체 대표는 “이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무슬림 여성들이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한다. (금지안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 개종 아이들 이단자 취급”

우간다 무슬림 부모…기독교 개종 아이들 구타 후 쫓아내



©아프리카미래재단

예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며 기쁨에 넘쳤던 그 아이들은 순진하게 부모에게 회심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격렬한 반응에 충격을 받을 뿐이었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를 구타했고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했다.

부모들과 다른 구성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리를 지어 파워게이트 교회에 가서 불을 질렀다. 그 방화범 중 한 명은 심지어 무키사 목사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모닝스타뉴스는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이단자로 간주하고 완전히 이절했다”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애쓰는 것을 도와주며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에는 한 무슬림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라마단기간 금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9살 된 아들을 나무에 묶고 불을 지른 일도 있었다.

지난 3월에도 어느 어린 기독교 개종자가 아버지와 삼촌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집이 방화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강혜진 기자

“보코하람, 인질 여학생 동영상 공개”

치복시에서 납치한 여학생 살해 위협…조직원 석방요구

나이지리아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14일(현지시각), 2년 전 나이지리아 북부 치복시에서 납치한 여학생 상당수가 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를 여학생 일부가 정부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한 언론인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4년 4월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던 치복의 여학생이 등장했다.

자신을 2014년 4월 납치된 북동부 치복 여학교 학생 276명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이 소녀는 “정부군의 공중 폭격으로 일부 동급생들이 죽었으며, 40명은 이곳 전사들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한 대원은 “정부가 화

력으로 보코하람과 싸움을 계속하면서 소녀들은 살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랍 여학생 한 명을 등장시켜 여학생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수감 중인 조직원들을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랍 여학생 중 218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15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나이지리아군은 성명을 내고 보코하람 세력과 연계된 협의로 기자 1명과 다른 2명 등 3명을 심문하고자 이를에게 수배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군 공보 장교인 사니 쿠카세카 우스만 대령은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예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천체아예배 8:00pm
사복예배 (월~토) 5:00am (마음일) 7:00am
화요증보기도회 7:00pm 토요성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도시체육예배 오전 6: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gfc.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금요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育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마이어부·유초등부·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힐어부 오후 11:30
4부 오후 2:00(점은이예배)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후 9:15
고등부 오후 11:30 힐어부 오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힐어부 오후 11:30
4부 예배 1:30(청년·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후 11:30(청년·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1부예배 오전 9:00:15 중등부 오후 9:15
고등부 오후 11:30 힐어부 오후 11:30
4부 예배 1:30(청년·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후 11:30(청년·영어)

김현요 담임목사

토요 새벽예배 새벽 6:00

주일예배 오전 7:15 새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새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 788-3677 / www.yorba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pm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pm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세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주 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세벽예배 화~금 5:30pm
금요예배 오후 7:30

주 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pm, 토 6: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9:00am 새벽 예배: 오후 8:00pm

주일 예배: 오전 11:00am 새벽 예배: 오후 8:00p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pm, 토 6:00pm

조원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8:00pm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pm, 토 6:00pm

<b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이름이 능력입니다”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00AM ~ 5:0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담임목사 윤대혁)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오전 주제 발표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 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종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개회예배 초청설교자
곽부환 목사 (한마음제자교회 담임)
"본질을 회복하라"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감증을 받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 않아 목사들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오후 사역 보고(선택 수강)

● 사역의 현장에서 - 오후 1시 40분 ~ 2시 40분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Esau Canales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박세현 목사
(예수로교회)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 사역하는 교회 - 오후 2시 50분 ~ 3시 50분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원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무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송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 사역이 곧 복음이다 - 오후 4시 ~ 5시



이희문 목사
(LA 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한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미군 군목이나 대형 병원 원목으로 지원하기 원하는 분 참석 환영합니다.

"십자가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고백이었고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도 예수이름이 능력입니다. 주강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자원해서 사역을 통한 신앙고백을 주님앞에 드립니다. 허물많고 부족한 종들이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야기에 함께하세요.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영성이 좋다 안좋다라는 세상이야기가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아 주님오실때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의 신앙고백입니다."



푸른투어 LA
PR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 플러싱 지사 [718]928-3333
725 Grand Ave #305 154-08 Northern Blvd #2B
Ridgefield, NJ 07657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 서울 지사 [02]739-089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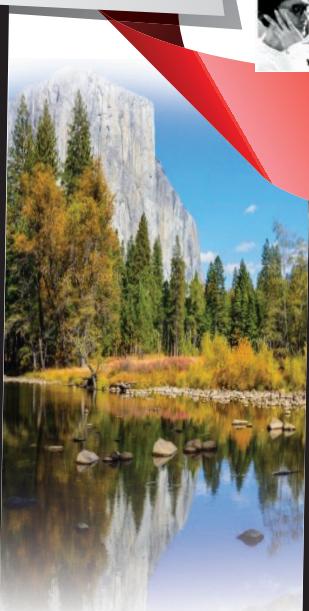
'하늘에서 즐기는 세계 7대 자연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 & 호스슈밴드

캐나/파월호수(크루즈)/
엔텔로프 캐년/호스슈밴드
(\$150상당 경비행기 포함)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마운트 워트니의 워트니포탈,
모로베이를 함께 보다!'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워트니 포탈 / 바숍 / 타이오가 패스
/ 요세미티/프레조나/모로베이(기아)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노동절 특선 345! 상품을 이용하시는 선착순 30분까
추가 혜택 티켓을 드립니다!

노동절 특선

고객감동을
약속합니다!



40명 한정!!!

'서부해안 최고의 숨겨진 명소
빅서! 이제 함께 떠나요'

빅서/피나클스 국립공원

산타비비라 / 빅서 / 캘리씨티 /
레드우드(기차) / 피나클스 국립공원
파스로블레스(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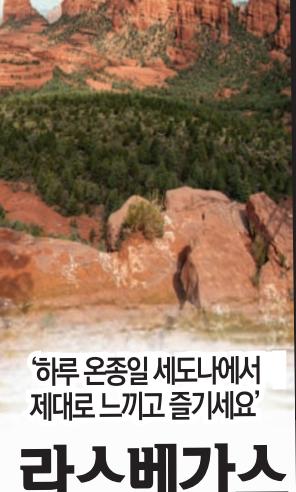
'기차, 온천 그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샌디에고 기차여행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라호아(소피) / 샌디에고 항구(크루즈) /
줄리안/엘림 헛 스프링(온천) /
캘리포니아 랙치(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하루 온종일 세도나에서
제대로 느끼고 즐기세요'

라스베가스 세도나

버스투어 / 라스베가스 / 후버댐
윌리엄스 / 슬라이드락 주립공원
오크크리 캐년 물놀이 / 세도나
볼텍스 / 몬테주마 월 / 펌프링스

▶출발: 9월3일 (토)

3일 \$299
~~\$249~~



캠핑전문 백유진 가이드와
함께하는 요세미티 캠핑

[렌치기네] 요세미티 캠핑 2박 3일

프레즈노 / 요세미티밸리자/
터널뷰 / 면사포포 / 요세미티레이크
RV리조트 / 글레이서 포인트/
타이오가 패스 / 휴트니 포탈

▶출발: 9월3일 (토)

3일 \$399

[4인 1실 기준]

푸른투어 LA 오픈기념 이벤트

마감!!!

푸른투어에서 만 가능한 나아이카라 흡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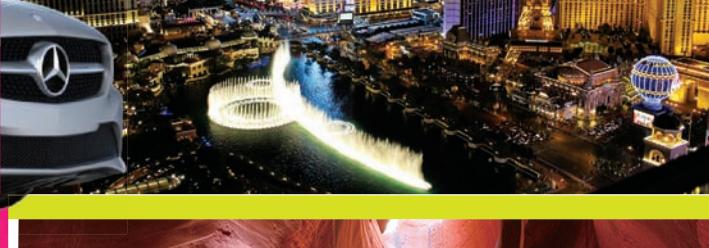
나이아가라 / 토론토 4일 ▶출발: 9/2(금) \$949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라스베가스 5성 호텔

"업계최초"



추가요금 없이 벨라지오 속박

미서부 실속 5박 6일 ▶매주 화/토 \$599

미서부 4대 캐년 6박 7일 ▶매주 화/토 \$689

4대 캐년 3박 4일 ▶매주 화 \$599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 3일 ▶매주 화/토 \$299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매주 토 \$389

★응모기간: 2016년 7월8일 ~ 10월14일

추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하며
그 외 모든 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축/당/첨"
고객성함: 최은순 님

주첨자: 대안항공 (AX)점장 (우측)

그랜드서클 9대 캐년 + 세도나 7일

예술과 대자연의 만남〈세도나〉, 거대한 협곡〈그랜드캐년〉, 빛의 미술〈엔텔롭 캐년〉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글렌캐년 & 페일호수〉, 나비호 부족 성지〈모뉴멘트밸리〉
바리미 빛어낸 신비의〈아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 듯한〈캐년랜즈〉,
협곡 속으로〈애피톨리프〉, 붉은 침엽들의 향연〈브리아스 캐년〉,
웅장함의 극치〈자이언트캐년〉,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라스베가스〉

▶출발: 8/25 \$849

Imagine your Korea
world

단풍절정 한국일주 10일

전주/해남/순창/하례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등 단풍일주

▶10/20 \$2,560 (항공포함)

서부 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동부 본부

나이아가라 유람선 포함

신상품

라스베가스/세도나/파닉스 4일 ▶8/29, 9/26

\$399

오크크리캐년 예술인의 미술 스코즈데일

리리조나 마션 사구아이로 국립공원

제9자 미국남부 대륙횡단 14박 15일 ▶10/20부터

\$2,599

비스토우, 라스베가스, 플렉스텔 세도나
투산 퀸스베드, 페코스, 산안토니오 시나곤방

NASA 미사시피 증기 유람선 뉴올리언즈
몽고메리 아틀란타 테네시 위성턴 뉴욕

/항공포함/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매주 월 1차 8월 15일

•한수희 칼럼(12)

마음의 상처 다스리기(3)

마음에 상처를 주는 현상들은 셀수없이 많으나, 상처의 본질은 무력감과 좌절감, 분노, 그리고 반항심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생기는 감정은 고통,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다.

또한 과거의 경험과 환경은 상처의 씨앗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황과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해결해 나가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스스로 상처받았음을 시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처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욕감, 수치심, 고통도 함께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억눌리고 부인된 감정은 계속 마음에 남아 나 자신과 대립하게 된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억눌린 감정과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해답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 하는 순간, 그 대체물은 중독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 대상은 약물과 알코올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건강해 보이는 일, 건강, 가정 혹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다. 상처의 도피처는 집착의

대상이 되기 쉽상이며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관계를 끊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상처를 끝내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미해결 과정으로 놓아두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 물론 끊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과 상처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는 사람들 의 경우,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보다 상처에 대한 저항력과 상처 회복의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 다른 각도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거리를 두고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욕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인 흥분은 곧 가라앉는다. 타인을 향한 마음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야 한다. 자존감은 상처 치유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권리를 남에게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던져 주지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비판은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 보도록 하자. 우리가 충고나 비판을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할 것이며, 충고나 비판을 듣는 입장에서 서게 될 때는 그 말을 선물로 받아들이길 권한다.

비판이나 충고는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인지, 자존감이 약한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묵은 상처를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비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는 각자의 인생에서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화가 났음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다. 화가 커지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양감음을 하

고 싶어진다. 그러나 복수의 화살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와 이유에 대해 상대에게 알리는 쪽을 택하도록 하자.

일곱 번째, 쳐별은 분노를 차갑게 식힌 후에 하도록 한다.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쳐별을 내리면 그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 거르지 않고 화를 낸 후 다시 자녀에게 사과하는 부모들이 있다. 권위가 세워질리도, 교육이 될리도 만무하다.

마지막으로 의식적인 호흡과 말씀묵상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신체적 정신적 경직을 해소하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주는 상황에 노출되면, 결국에는 만성적인 근육의 긴장, 호흡곤란, 담석증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나 면역력 약화같은 훨씬 더 심각한 신체적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심호흡이 필요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준다.

숨을 들이쉴 때 내몸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내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순간에 의식을 집중시킨다. 그 다음에는 순환호흡으로 넘어간다. 몸의 긴장을 풀고 균일한 간격으로 숨을 깊이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곧바로 다시 들이마신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하며, 30초 간격으로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한다.

이 연습을 자주 하면 느닷없이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공격을 물리칠 검과 방패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성취는 거절을 통해서였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히 바란다. 지금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권위와 주권을 거절함으로 성령님께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 앞에 솔직해집으로…내가 주는 상처에 지나치게 관대하며, 받는 상처에 극도로 예민한 자리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한다.

•김병태 칼럼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본 인생 드라마

세상에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인생을 전쟁을 하는 병사, 운동 경기하는 선수, 농사를 짓는 농부 등으로 소개한다. 어디 하나 쉬운 게 있는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해야 하고, 땀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해도 열매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IS의 테러를 염려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화려한 막은 올려졌다. 경기가 펼쳐지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올림픽 현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현장이다.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딤후 2:5).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그걸 경험했다. 약물이 검출되어 올림픽 출전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어왔다. 애처로울 정도로. 그래서 난, 리우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목에 걸어 그동안의 아픔과 눈물을 씻길 고대했다.



김병태 목사
성천교회

름다운 것인니까. 거기까지 달려온 인생이 소중하니까.

이번 리우 올림픽은 '세계 1위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랭킹 1위의 메달 유망주들이 충격적인 탈락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세계랭킹 141위에게 세트 스코어 0-2로 참패를 당했다. 그것도 단식 첫 경기에서! 이전 올림픽 3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했던 윌리엄스 자매 역시 복식 경기에서 체코 선수에게 1회전 탈락을 했다. 세계 랭킹 1위인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 김원진 선수는 세계 18위에게 패했다. 이번 대회에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자주하곤 한다.

장담할 수 없고, 랭킹을 믿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자랑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리우에서 또 다른 이변도 일어나고 있다. 세계랭킹 8위인 유도의 정보경은 8강에서 세계랭킹 1위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 결국 우리나라에 첫 메달을 안겨주었다. 세계랭킹 21위인 박상영은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3위인 게자 임례 선수를 10:14에서 15-14로 반전시키는 짜릿한 대연전극을 연출하여 기적과 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펜싱 첫 메달이자 우리나라 에페 역사상 첫 금메달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역전 드라마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추락하다가도 한순간에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불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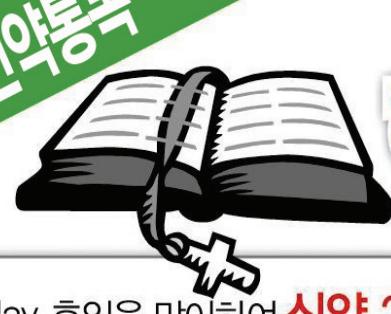
올림픽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도 연출된다. 작은 섬나라 피지의 남자 럭비 대표팀은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조국에 선사했다. 미국 흑인 체조스타 시몬 바일스도 감동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흑인은 뛰어난

체조선수가 될 수 없다는 편견. 그러나 그는 결국 체조 흑진주로 세계인 앞에 우뚝 섰다.

이란 양궁 여자 대표 자흐라 네미티. 그는 64강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감동을 안겨 주었다. 장애를 극복한 영웅이니까. 훨체어를 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기장에 나온 자체가 감동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는 이미 올림픽 영웅이었다. 올림픽 최초의 훨체어를 탄 기수였으니까.

캄보디아의 리나리(44)는 리우 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꽂찌한 선수이다. 그녀는 이날 여자 마라톤 경기의 133번째이자 마지막 완주자였다. 가장 먼저 골인한 케냐의 젤라가트 제미마 숨공(시간 24분 04초)엔 56분 16초 뒤졌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나리는 캄보디아 국기를 몸에 두른 채 기쁨을 만끽했다. 관중들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꼴찌'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캄보디아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톤 출전과 완주 기록을 쓰는 순간이었다.

제24차
9월 5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6년 9월 5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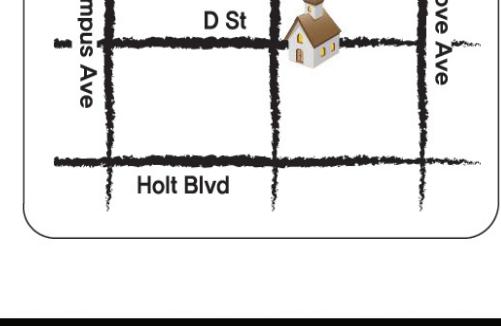


강사진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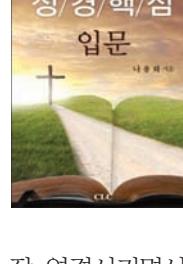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성경 핵심 입문

나옹화 | CLC | 320쪽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다를 다룬 책이 결코 아니다. 이 책은 신구약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흐름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을 꼽으라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을 잘 연결시키면서, 성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권별로 조직적인 구성을 통해 정리해 놓은 책으로서는 매우 탁월하다 할 수 있다.



마하나임-하나님의 군사

김동호 | 규장 | 264쪽

평생 단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 김동호 목사. 돈, 명예, 사람 등 세상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그의 단 하나 목표였다. 그런 그가 은퇴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는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재정'이라는 영역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자고 한다. 그것이 이 땅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훈련임을 알기 때문이다.



BKC 강해주석(30)-요한계시록

존 윌부드 | 두란노 | 196쪽

두란노 BKC 강해주석은 권위를 자랑하는 달лас 신학교의 교수진들이 직접 편집한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를 원문 그대로 옮긴 성경 주석서이다. 성경 전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두란노 BKC 강해주석』은 강해설교와 큐티의 핵심을 짚어주고 뼈대를 잡아 주는 현대인의 주석서로 손색이 없다.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권한다.



교회는 팀이다

짐 푸트먼 | 생명의 말씀사 | 248쪽

교회는 원맨팀이 아닌 원팀으로 싸워야 한다. 리더 혼자 싸우는 팀, 성도가 관중석에 앉은 팀은 세상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교회는 먼저 회심자를 만들고, 제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복음을 나누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교인을 양산하고 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는 지금도 실현 가능하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다음세대, 청소년 교회학교 사역자 위한 지침서”

교사와 사역자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회학교 사역 가이드북!

이 책은 현장에서 직접 뛰고 뛸 줄며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살리려고 몸부림쳐온 한 사역자가 가슴으로 외치는 메시지다.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다음세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다.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교회학교(또는 주일학교)로 불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라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교회학교 모습이 그 교회의 30년 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로 요약하는 중등부와 고등부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당연히 청년부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생존 문제가 아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의 중차대한 핵심 사명을 놓치는 일이다.

저자 고은식 목사는 현재 탱크 목사로 알려진 흥민기 목사와 함께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공동 대표이며, 10년 넘게 교회교육과 부모교육, 청소년 사역자 학교, 청소년 캠프 등의 사역을 해온 전문 청소년 사역자다. 일선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로서 섭격은 교육목회 전문가이다.

그는 또한 군 복무 시절부터 취미 삼아 운동을 병행해 건강한 몸을 가졌다. 후배 사역자들에게 사역 노하우를 전수하며 훈련을 시키는 동안, 마치 헬스 트레이닝 개

교사 트레이닝
고은식
넥서스CROSS | 248쪽

인훈련(PT:Personal Training)처럼 교사와 사역자들에게도 체계적인 사역 훈련과 개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 이 책을 썼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교사도 교회 체형 분석 통해 자기 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스트레칭으로 여유있게 운동을 시작하듯 아이들

을 유연성 있게 이해하며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라고 조언한다.

예배는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이며, 제자훈련은 심폐 지구력 강화 운동에 비유했다.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일은 사역의 허리처럼 중요해서 척추기립근 운동(데드리프트)에 비유했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의 관계사역은 전신 균형 운동에 비유했다. 수련회를 중요하게 다루어 코어 운동에 비유했고, 수련회 준비와 그 이후의 사역 노

하우까지 총망라했다. 나아가 연간 사역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을 디아이트 식단 관리에 비유해 체계적인 사역계획 노하우까지 전수해준다.

이 책을 보면 주일학교(특히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할지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풍성히 얻을 수 있다. 초보 사역자나 젊은 교사라면 교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자세와 태도는 물론, 때에 맞게 준비해야 할 사역 노하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교육을 섬기는 사역자와 교사로서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인 기자

총회 공고 및 회원모집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에서는 초교파로서 복음(=말씀)중심, 선교중심, 연합(=친교)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2015년도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회원 모집

1. 시무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2. 남·여 구분이 없습니다.
3. 목사, 장로, 권사로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4.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총회목사고시를 통하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입상담전화 T:(213)272-6031

총회 일정

1.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2. 장소 : 나눔과 섬김의교회(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3. 주소 :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8월 24일~25일 (1박 2일 세미나 및 관광)

총회장: 김인철 목사 준비위원장: 강성수 목사
총무: 김 엘리야 목사 T(213)272-6031



CGMA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CGMA)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72-6031

[북스리뷰]

“사회학자가 본 초대교회 성장요인”

계급, 유대인, 역병, 여성, 도시, 순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행 5:42),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수가 날마다 늘었고 (행 16:5),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에(행 18:20)” 부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요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고전 2:4)” 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담백하지만, 세상은 이러 한 ‘믿음’을 ‘증명’이나 ‘이해’의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다.

美 워싱턴대 사회학 및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Rodney Stark) 박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여서, 사회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통해 초기 기독교의 급성장 요인을 파헤쳤다.

다양한 주제로 이유를 분석한 논문들을 모은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은 그 결과물이다.

저자의 질문은 단순하다. “결국 기독교의 발흥에 관한 모든 물음은 하나로 수렴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이 하나의 물음에, 저자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달리) “단 하나의 요소가 기독교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여려 갈래로 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분(계급)’부터 시작해 ‘유대인 선교’의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 ‘도시 제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의 성장에 어떠한 발판을 제공했다.

또 그 시절 유행했던 전염병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들이 어떤 ‘변수’가 됐는지, 기독교인들의 비율에 여성이 많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최신 연구조사 방법론들을 총동원해 꼼꼼하게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
좋은씨앗 | 352쪽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나돌았던 ‘역병’에 대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키프리안, 디오니시우스, 유세비우스 등의 여러 교부들은 역병이 기독교에 주요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고전 사회가 이런 재난에 의해 지죽이 뒤흔들리고 희망을 잃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지배적 신앙으로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역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됐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찬,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둘째로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은 사회봉사와 공동체 결속으로 현실화돼,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더 훌륭하게 대처한 결과 ‘월등히 높은 생존률’을 기록했다.

“매번 역병이 훔쓸고 간 후, 기독교인은 새로운 개종 없이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생존률이 눈에 띌 만큼 월등하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나 이교도 모두에게 ‘기적’으로 비쳐졌을 것이고, 이는 개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로는 ‘순응성(conformity)’에 관한 통제 이론을 적용한 것

이다.

역병이 훔쓸고 갈 때마다 증가한 사망률은 이교도들이 과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던 속박을 잊어버리게 했다.

또한 기독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보여준 우월한 생존률은 이교도에게 유실된 애착관계를 기독교인과의 새로운 애착관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수의 이교도가, 이교도가 주류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기독교인이 주류인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했으리라는 추측이다.

저자는 현대적 기법, 즉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데이터와 연구조사로 자신의 주장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그는 ‘기독교의 발흥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다소 신성모독적이지 않은가’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가질 법한 불만이나 염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명이라면 해명이랄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신성(神性)에 관해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이 아직 기독교화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자연스레 기독교화하도록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자명하다. 도리어 신약성서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회술한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탐색에는 어떤 신성모독적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 더욱이 나는 기독교의 발흥을 순전히 ‘물질적인’ 혹은 사회적인 요인으로만 환원시키지 않는다. 교리가 성공의 관건이다. 기독교 성공의 핵심 요소는 ‘교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였다.”

저자의 설명처럼 이 책은 ‘신성 모독적’이라기보다,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 그에 따른 우리의 실천들이 ‘원래 의도’와 관계 없이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에도 유용할 것이다.

저자의 시도는 최신 사회학 이론으로도 2천 년 전 시작된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저 1960-80년대 부흥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렌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저자의 시도는 최신 사회학 이론으로도 2천 년 전 시작된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저 1960-80년대 부흥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렌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저자의 시도는 최신 사회학 이론으로도 2천 년 전 시작된 기독교와 성경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저 1960-80년대 부흥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렌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북뉴스 칼럼]

“교회가 다시 문화 선도하려면”

교회가 다시 문화 선도하려면…답은 독서다



고 경 태 목사
북뉴스 편집위원

조하다.

독서는 종이로 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도 PDF로 다운받아 모니터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PDF도 결국 프린터로 출력해서 줄을(연필로) 그으며 읽어야 제 맛이다. 색연필을 사용하면서 읽고, ‘포스트잇’을 붙이며 읽는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 읽은 뒤에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

독서는 독서 메모, 포스트잇, 색연필, 형광펜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 의지를 책에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종이책은 그 역사를 간직한다. 그 종이책은 나의 역사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둔 그늘을 늘어뜨리고 있다. 교회와 목사의 부패한 모습은 심심치 않게 메스미디어에서 볼 수 있다. 메스미디어에 소개되는 내용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겠는가?

그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인 것으로 오해시킬 정도로 위력을 갖고 있다. 대형교회는 부패하고, 미자립교회는 무능하다고 비판하니 어찌할 길이 없다.

교회가 사회에서 문화 선도자의 위치를 상실했고 더 자극적인 세속 문화(EDM)를 교회에 유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반드시 사회에서 문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포기할 수 없는 문화 활동 분야를 필자는 ‘독서’라고 말한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독서 문화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지하철을 타 보면 99%가 핸드폰으로 가십 기사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간혹 이북(e-book)을 보는 독서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이책을 갖고 있는 독서가는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세속 문화에서 교회가 가장 선도해야 할 부분은 독서이다. 독서는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지성 활동이고 사상의 계승 방법이다.

한국 사회는 독서가 서구 사회에 비해 매우 발달한 특성이 있다.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학구열이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과 같은 학구열은 없다.

그런데 지나치게 경쟁화된 학구 열이 자녀를시험 보는 기계로 전락시켜, 오히려 학문 기능을 악화시켰다. 참고로 출판사는 흥행하지만 다른 분야의 출판은 매우 저

그리스도인은 책을 읽어야 한다.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성경 책도 패드나 핸드폰이 아닌 성경 책으로 읽자. 헤어진 성경책에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 보자.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독서가 필요하다. 그러한 유익한 문화를 세속 사회가 포기한다면, 교회가 앞장서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책을 사라.

책을 선물하라. 그래서 좋은 사상이 무엇인지도 알고, 시대정신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혁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에 종이책은 다시 부흥할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챤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은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체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Over 100 congregants from seven different churches in the greater Seattle area formed one mission team to share the gospel in Mattawa. (Photo courtesy of Young Nak Church of Seattle)

Korean Churches in Greater Seattle Unite to Share the Gospel

BY BRIA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Seven Korean churches in Washington state, including Young Nak Church of Seattle, Seattle Covenant Church, Korean Kirkland Covenant Church, Seattle Woori Church, Trinity Presbyterian Church, and Bellevue Sa-rang Church, formed one mission team to share the gospel to people in the town of Mattawa, WA, from July 28 to 31.

Over 100 members of the seven churches participated in the trip, and they passionately shared God's love in the midst of heat that went over 110 degrees Fahrenheit.

The mission team held a 'Mexico Day' during the trip, during which the team and the residents shared with each other about Korean and Mexican cultures.

Free dental care and hair styling services were also offered during the trip.

Meyong Hun Ba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hurch of Seattle, expressed gratitude for the fact that seven churches were able to come together for the one purpose of sharing the gospel, and that younger members of the Korean churches were also able to join.

Young Nak Church of Seattle has been visiting the town of Mattawa

-- where 90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Latino -- for about 13 years for short-term mission trips. Over the years, other churches have joined, making the mission trip grow to become what it is today.

Others who did not personally participate in the mission trip contributed by giving financially and helping with other material needs, which the mission team was able to use for materials for VBS and to give as an offering to a local Mattawa church.

"I hope that even more Korean churches in the Seattle area will become one and lead the way in the work of sharing the gospel," said Rev. Bae.

Gifts for Students in Foster Care: New Backpacks and Supplies for the New School Year

BY RACHAEL LEE

Over 300 Asian American students living with foster care families are starting this school year with fresh school supplies and new backpacks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held its third annual backpack and school supplies drive during the month of July, and was able to gather enough donations to provide 327 new backpacks with school supplies for Asian American students under the care of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and 10 new backpacks

with school supplies specifically for Korean students living with foster families.

The backpacks were delivered to the Asian Pacific Unit of the LA DCFS on August 10.

"The backpacks that the Korean community has provided for these foster children will prove to be a source of confidence and joy for them," said Frank Ramos, the regional administrator of the Covina and El Monte offices of the DCFS.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KFAM in early July, more than 34,600 children are under the care of the LA DCFS. 680 of those children are Asian American, and 40 are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delivered over 300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for students in foster homes on August 10.

Interview with Pastor Charles Choe: 'Being a Church for the City'

BY CHRISTINE KIM

"We want to be a church that represents the city, a church that reflects the diversity of the city," says Pastor Charles Choe of Tapestry LA.

Tapestry LA is a church of about 400 members located in Los Angeles, CA that was started in July 2014.

"We're mostly Korean Americans and Chinese-Americans, but there is a growing non-Asian population," Choe said, adding that becoming more multicultural is the goal. "I would say we're about 80 percent Asian, and 20 percent non-Asian right now."

Choe had long encountered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throughout his career, though he hadn't always served in a multiethnic context. Previously, he served in a Korean American church, but he had also been bi-vocational for quite some time as he worked as a teacher in the inner city for 10 years. This not only exposed him to diverse people ethnically, but also socioeconomically. He saw the needs of the city.

"One of the things I have a passion for is being a city church, much like Tim Keller's model," Choe expressed. "L.A. is the most densely populated region west of the Mississippi, and I felt like God was strategically placing us here."

Choe said he hopes he and the members of Tapestry could

become a church for the city by embodying three values: first as a family member of the church; second as a missionary both locally and globally; and third as a servant by reflecting "the servanthood of Jesus."

When it comes to teaching members about these values of the church, Choe acknowledged that "people are at different levels." In order to accommodate these differences, the church hosts an informational meeting for newcomers every month called Tapestry Connect, during which they go over these values and explain what it means to be a member of the church. Also, for one week in January at the start of the new year, the church spends a week fasting together. Following that week marks the beginning of Tapestry's discipleship training which is organized into two different tracks based on the material used in the program: "Alpha," a 12-week course for new believers, and "Experiencing God," a 15-week course for a more intense training.

It's during the 15 weeks of the 'Experiencing God' discipleship track that Choe elaborates on the three values of family member, missionary, and servant, and tries to impart the values of the church to the members.

"During these sessions, I would talk about everything that this church values, the DNA that we want them to have," Choe said.

"This discipleship course is basically a chance for us to talk about the things we value as a church and to impart the things that I believe are important for them as disciples. I teach on these values and I hope that people are convicted to practice them."

Of these values, the value of servanthood is the one which Choe hopes his congregants will live out as they interact with the neighboring community and serve the city in practical ways. He and the church leaders t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members to practice that servanthood on a regular basis.

One of the most regular ways the church reaches out to people in the community is by going out to the Westlake area in Los Angeles once every month, engaging with strangers, and asking if they would like to be prayed over, an outreach that the church calls "Love Westlake." Choe and Tapestry LA's leaders also encourage the members to walk to lunch on Sundays to support local businesses, and make the church's presence known as the members become regulars at surrounding restaurants.

Tapestry LA also holds an annual school supply drive to provide new school supplies to children whose families may not be able to afford buying new supplies for them each year.

The church has also been in touch with the local government.



Charles Choe is the lead pastor of Tapestry LA, located in Los Angeles.

Choe said he reached out to Los Angeles City Council Member Gilbert Cedillo to let him know that the church is in his district, and Tapestry LA has worked with the Los Angeles Housing Project on low-income housing projects.

"For one of our projects with the LAHP, one of our members who is a chef went to one of the low-income housing buildings once every month. She would cook in the first floor kitchen and invite the people in the community to join, and taught them how to cook healthy meals," Choe said. "Some of our other church members also came along and volunteered."

Choe described one of the proudest moments he has had as the pastor of Tapestry LA; a time when the church partnered with

a non-profit called Aztec Rising to hold a taco social with gang members in the community.

"There were 12 gang members at the social, and I didn't think many of our church members would show up but actually about 300 of our members were there," he said. "I had a chance to shake hands with the gang members and give them Bibles. And I remember thinking, 'This is what it means to be a part of Westlake.'"

"We talk a lot about what it means to be a city church in our sermons," Choe explained. "That means we're here not to plunder the city, but to bless it. We can't be suburbanites who simply go to church in the city. We have to engage the people who live here, and really be a part of the community."

Teaching the Old Testament, One Professor Plans to Focus on the Holy Spirit

BY RACHAEL LEE

John Shin, who has been teaching the Bible for over 20 years now through 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 schools through Gateway Seminary (formerly known as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ays his passion is to teach not only the 'head knowledge' about the Bible, but also stir in students a passion to share the gospel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hin says these are the very aspects he still desires to

impart to his students as he continues to teach this upcoming fall.

"The founding person of lay ministry is Jesus -- He called ordinary people and trained them and empowered them to do extraordinary work," Shinsaid. "And extraordinary work means it's a ministry done by the Holy Spirit. That's the key -- I'm not perfect, but He will do it."

Shin explained that another reason he is passionate about teaching through CLD, a ministry training program aimed to be accessible and affordable for individuals of

post-high school level, is that he believes the role of the lay person is important in fulfilling change in the church and in the greater community.

"Most seminaries or theological schools emphasize academic criticism, which is not bad," he continued. "But our classes are focused o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so you can apply the knowledge directly into ministry, whether it's personal ministry, pastoral, missionary, counseling, any type of ministry."

This fall, Shin will only be teaching the Old Testament, and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that will better equip students to also understand the New Testament more deeply. Though the class is a part of the Korean track of Gateway's CLD program, Shin plans to teach in both Korean and English if the enrolled students are in need of both. All materials handed out in class will be writt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Meanwhile, those who complete

a course through a CLD center could continue to take more courses to receive a CLD certificate or diploma, which could then be used to earn 10 credits upon enrollment to a master's program at Gateway or any other theological school.

The Old Testament course is \$285 including the registration fee, and is worth 3 units. Those who are interested must apply by August 31, and the class will run from August 29 to November 21. For more information, email jshnglobalms@hotmail.com.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1

T.(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B 1146 Amended to Drop Potential for Lawsuits, While Maintaining Requirement for Disclosures

BY RACHAEL LEE

A bill that has alarmed religious univers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has been amended on Monday to take out a portion that would have required religious institutions to provide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and housing for same-sex married couples, among other requirements.

Section 3 of the bill, known as Senate Bill 1146, is the portion that has been amended. Previously, the section included specific requirements for religious institutions that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or enrolls students who receive financial aid from the state (such as Cal Grants), including requirements to have the aforementioned restroom and housing accommodations, as well as requirements to enforce religious practices and rules of moral conduct only if "uniformly applicable to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 student'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previous version of that section also included a portion that said violations of those requirements listed in the bill could be enforced with lawsuits against the religious institution.

The bill was amended to take out that section completely, and insert a new Section 3 which requires institutions that claim Title IX exemptions to submit to the Student Aid Commission quarterly reports detailing why students were suspended or expelled during the past quarter, and whether those students were Cal Grant recipients.

The other two main sections of the bill -- which includes requirements to provide disclosures to students and employees in school materials saying that the school has claimed exemptions from Title IX in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a clause requiring



Students walk by booths of missions organizations at Biola University during its missions conference in March of 2015.

ing non-discrimination based on sex in schools) and why the school has done so, among others -- remained the same.

"The goal for me has always been to shed the light on the appalling and unacceptable discrimination against LGBT students at these private religious institutions throughout California," Senator Ricardo Lara (D-Bell Gardens) told the Los Angeles Times.

"I don't want to rush a bill that's going to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so I want to take a break to really study this issue further," he added.

Religious institutions and leaders have been actively expressing opposition to the bill, creating a website called 'Oppose SB 1146,' holding meetings with local religious leaders regarding the issue, and releasing public statements of opposition signed by major religious figures across the country. Religious leaders have heralded the changes as a victory.

"It appears that we have won a battle in the war to defend religious freedom, but we anticipate that many more bat-

tles remain," wrote Kurt Krueger, the president of Concordia University, in a statement.

"Biola University is grateful to the senator for his continued commitment to working with AICCU (Association of Independent California Colleges and Universities) on our behalf to retain the state's commitment to access, opportunity, and choice," said Biola University in a statement. "Biola will change its position on this legislation from 'oppose unless amended' to 'support.' Biola has long held to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in explaining their policies and the reasons for them."

"We share the senator's concerns for student safety, transparency, and recourse, particularly for LGBT students," wrote Azusa Pacific University in a statement. "We want those same protections for [all] students."

Prior to the recent changes made on the bill on Monday, SB 1146 had been passed by the state Senate in May, and it was most recently approved by the state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 on August 11.

Koreatown Redevelopment Plan Including Community Center Receives Approval

BY CHRISTINE KIM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unanimously voted in approval of a plan to redevelop county-owned buildings in Koreatown, and to include a community center in that plan.

The passage of the plan is a victory for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advocating for a space for the community in a densely populated

area that is lacking in parks and community centers.

The facility which is currently occupied by office spaces for parks and recreation staff will be transformed into a 72-unit housing complex for seniors with a 12,500-square-foot community center. Over 100 members of the community attended the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on August 9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prospective

plan which was expressed during the public comments section.

The Tuesday meeting scored an initial agreement between the supervisors and the development team. According to Curbed Los Angeles, a year and a half will be spent in preparation for development after which the developers will meet with the Board of Supervisors to finalize details regarding budget and lease.

Churches and Charities Offer Shelter, Aid, and Prayer to Those Affected by Louisiana Floods

Local churches and the American Red Cross have opened up shelters for thousands escaping the massive flooding in Louisiana.

At least seven people have died and some 20,000 were rescued from about a dozen parishes in the state. The Louisiana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while the federal government has agreed to consider the flooding as a major disaster.

The Red Cross is collaborating with many churches to volunteer to serve those affected by the torrential rains.

Thousands of people arrived at around 50 Red Cross shelters in Louisiana, many of which were based in churches.

First Baptist Church (Zachary),

Rock Church, Zoar Baptist Church, St. John Baptist Catholic are working as shelters in East Baton Rouge parish, while Fellowship Church and Mount Hope Baptist Church are volunteering in East Feliciana.

Several churches in Livingston parish, including Bethel Baptist Church,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Walker Baptist Church, Live Oak United Methodist and Riverside Baptist Church are also assisting those stranded in the flood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ecame an official Red Cross shelter about two years ago, and swiftly responded to the disaster situation. Rev. Jacqueline King said that the congregants of the church are themselves

reeling from the havoc caused by the floods, but have overcome their personal predicaments to help others.

"They've risen from those challenges to help. I couldn't be more proud. It is difficult and challenging but so incredibly rewarding to be the hands and feet of Christ," King told the Louisiana Conference.

The Billy Graham Rapid Response Team has sent crisis-trained chaplains to flood-affected regions in Louisiana. They will work together with Samaritan's Purse to alleviate the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sufferings of the victims of flooding.

The team focuses on offering prayer to those who are in need and are willing to listen.

Judge's Decision on Bathroom Use in Illinois Public School Delayed

A group of 51 families in Chicago had asked a federal court to temporarily ban a school policy granting transgender students access to girls locker rooms and restrooms, but the district judge passed on the decision to US Magistrate Judge on Monday, the day when the school year began.

The case was filed in May and the plaintiffs from Township High School District 211 in Palatine were expecting the judgement before or on the first day of the school year.

After the August 15 court hearing, the Magistrate Judge Jeffrey Gilbert said that he will follow up with the case soon and send his recommendation on injunction to district judge Jorge Alonso, according to Chicago Tribune.

Families who are part of a group called Students and Parents for Privacy say that the district policy ignores the privacy and safety of students.

"Every parent sends their kids to school expecting that the school is going to protect them at the most basic level -- their safety, their privacy, their dignity," said Jeremy Tedesco, a lawyer representing the plaintiffs in the case. "What we're asking for is a temporary injunction that will allow the girls to continue to have single-sex facilities to themselves, free from the presence of the male students while the case is pending."

The lawsuit says that some students "live in constant anxiety, fear and apprehension that a biological boy will walk in at any time while they use the locker rooms and showers and see them in a state of undress or naked."

A transgender student from William Fremd High School in Palatine had lodged a complaint with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at the student was restricted from using restrooms and locker 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

tity.

The federal authorities responded by enforcing a directive to allow students to use bath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and deemed the school district guilty of violating Title IX, a non-discrimination clause in the federal education code.

District 211 implemented the policy to avoid forgoing federal funds and further legal complaints.

The Students and Parents for Privacy group is being represented by Alliance Defending Freedom and Thomas More Society, which said that the defendants are hinging their arguments on a "subjective definition of sex."

Lawyers from the Education Department, meanwhile, said that prohibiting restroom and locker room access for the transgender student from the district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causes psychological harm to the student.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 STEVE CHOI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PASTOR TIM PARK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PASTOR SAM KO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PASTOR MICHAEL LEE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 가능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 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